

12월 4주
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

- **본문 말씀:** 요한계시록 21:1~4 (12월 27일 본문)
- **포인트:**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세요.

≡ 1. 찬양

(경배와 찬양)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

≡ 2. 기도

하나님, 올 한 해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.

≡ 3. 말씀

요한계시록 21:1~4을 함께 읽습니다(말씀을 3번 읽으세요).

*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<개역개정판 성경>

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

<우리말성경>

1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.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. 2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 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3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. 하나님의 *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.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과 함께 계실 것이다.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.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.”

≡ 본문 이해

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.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어요. 그곳은 생명과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에요.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요.

□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

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어요.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.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왔어요. 이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 성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(사 7:14; 마 1:21~23)이 완전하게 구현된 모습을 보여 줘요.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,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요.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도 없어요. 오직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,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에요.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이 실현된 나라(사 65:17, 19, 25)의 모습이에요.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선포해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예요. 이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밧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. 이 땅 위에서 겪는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곳을 분명히 보여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.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라고 말이지요. 이 말씀은 인생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소망과 위로를 전해 주어요.

≡ 4. 나눔

1)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복(은혜)을 누리나요?(3~4절)

■ 저학년

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나요? (3~4절)

■ 유아, 유치

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눈물을 닦아 주시나요? (3~4절)

□ 질문 가이드

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. 4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소개해요.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찾아보고,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.

□ 인도자를 위한 해설

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살 곳이에요. 이 땅에서의 삶은 불완전하기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일이 늘 일어나요.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장막인 새 예루살렘은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기에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.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.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.

2) 최근에 내가 겪은 슬픈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주님께 털어놓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어요.

■ 저학년

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은 무엇인가요?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?

■ 유아, 유치

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?

□ 질문 가이드

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아니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이끌어 주세요.

□ 인도자를 위한 해설

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. 무엇보다 사망이 왕 노릇 하기에 불행이 끝없이 찾아와요.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달라요.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어요. 오직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해요.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힘을 내야 해요.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이지만, 천국은 영원해요. 그리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(계 22:12).

“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”(계 22:12).

≡ 5. 감사하기

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,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.

≡ 6. 기도

하나님,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픔과 슬픔과 죽음으로 괴로울 때 천국 소망을 더 크게 품고,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희 가족 되게 해 주세요.

- ‘주기도문’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.